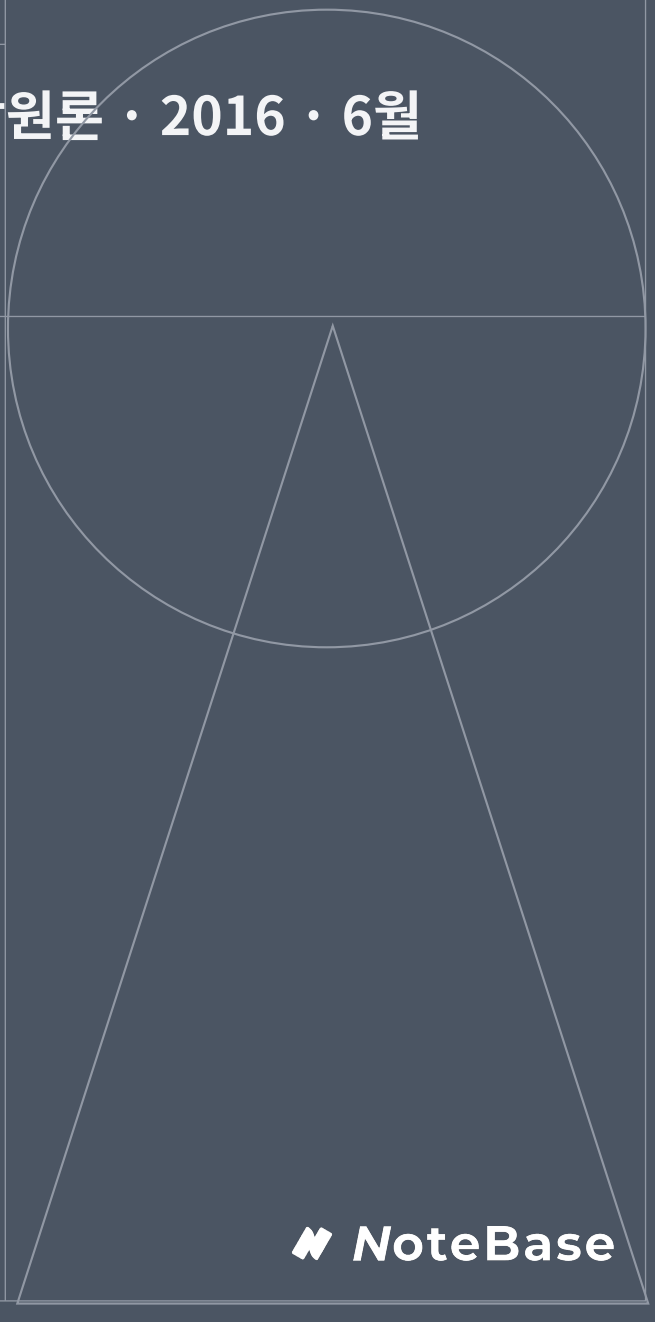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6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6 · 6월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6 · 6월

문 1.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 $U = X^{0.5}$ (X는 자산금액)이다. 이 소비자는 현재 6,400만원에 거래되는 귀금속 한 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 귀금속을 도난당할 확률은 0.5인데,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도난당한 귀금속을 현재 가격으로 전액 보상해준다고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소비자의 기대효용과 이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낼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각각 얼마인가?

① 기대효용: 40, 최대보험료: 2,800만원

② 기대효용: 40, 최대보험료: 4,800만원

③ 기대효용: 60, 최대보험료: 2,800만원

④ 기대효용: 60, 최대보험료: 4,800만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도난 위험이 있는 자산의 기대효용을 구하고, 완전보험의 최대 지불의사를 기대효용 동일조건으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귀금속 가치 6,400만원, 도난확률 0.5, 효용함수는 $U = \sqrt{X}$이다.
구해야 할 값: 무보험 상태의 기대효용과 보험 가입 시 낼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이다.
주의할 조건: 도난되면 자산금액은 0이 되고, 완전보험에 가입하면 도난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이 확실히 $6,400 - P$만원이 된다.

사용할 공식

무보험 기대효용은 $EU = 0.5 \times \sqrt{6400} + 0.5 \times \sqrt{0}$이다.
최대 보험료 P는 보험 가입 후 확실한 효용이 무보험 기대효용과 같아지는 값이므로 $\sqrt{6400 - P} = EU$를 사용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지 말지를 기대효용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무보험 상태의 기대효용은 $EU = 0.5 \times 80 + 0.5 \times 0 = 40$이다.
2. 완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P만원 내면 효용은 $\sqrt{6400 - P}$이다.
3. 무차별 최대 보험료는 $\sqrt{6400 - P} = 40$을 만족하는 값이므로 $6400 - P = 1600$, 따라서 $P = 4800$만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기대효용 40은 맞지만 최대보험료 2,800만원은 틀리다. 계산 결과 최대 보험료는 4,800만원이다. 틀린 표현은 "최대보험료 2,800만원"이고, 올바르게는 "최대보험료 4,800만원"이다.
② O: 기대효용 40, 최대보험료 4,800만원이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무보험 기대효용은 40이고, 완전보험 무차별 조건으로 구한 최대 보험료는 4,800만원이다.
③ X: 최대보험료 2,800만원이 틀릴 뿐 아니라 기대효용 60도 틀리다. $\sqrt{6400} = 80$에 도난확률 0.5를 곱해야 하므로 기대효용은 40이다. 틀린 표현은 "기대효용 60, 최대보험료 2,800만원"이고, 올바르게는 "기대효용 40, 최대보험료 4,800만원"이다.
④ X: 최대보험료 4,800만원은 맞지만 기대효용 60이 틀리다. 무보험 기대효용은 $0.5 \times 80 = 40$이다. 틀린 표현은 "기대효용 60"이고, 올바르게는 "기대효용 40"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sqrt{6400} = 80$을 본 뒤 확률 0.5를 반영하지 않고 기대효용을 60이나 80으로 잘못 적는 것이다. 또 최대 보험료를 기대손실 3,200만원으로만 생각하거나, 확실성등가 1,600만원과 보험료 4,800만원을 뒤바꾸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험자산 보험 문제는 먼저 무보험 기대효용을 구하고, 그다음 완전보험 후 확실한 자산 초기자산-보험료의 효용을 같게 두어 최대 보험료를 구하면 된다. 기대효용과 확실성등가, 보험료의 위치를 분리해서 본다.

암기 포인트

완전보험 최대 보험료는 기대효용을 같게 만드는 값이며, 이 문제에서는 기대효용 40 → 확실성등가 1,600만원 → 최대 보험료 4,800만원이다.

NoteBase

문 2. 장기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노동인구의 변동
② 자본량의 변동
③ 기술지식의 변동
④ 예상 물가수준의 변동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장기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실물 요인과 이동시키지 않는 명목 요인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장기 총공급은 경제의 잠재산출량을 뜻하므로 노동, 자본, 기술처럼 생산능력 자체를 바꾸는 요인에 의해 이동한다.
예상 물가수준은 명목 변수이므로 단기에 임금과 가격 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잠재산출량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노동인구가 늘거나 줄면 사용 가능한 노동투입량이 변하므로 잠재산출량이 바뀌고 장기 총공급곡선이 이동한다.
틀린 표현은 없다.

2번 O
자본량이 증가하면 설비와 생산수단이 늘어나 경제의 생산능력이 커지므로 장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없다.

3번 O
기술지식의 발전은 같은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이 생산하게 하므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여 장기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틀린 표현은 없다.

4번 X
틀린 부분은 "예상 물가수준의 변동"이다.
예상 물가수준의 변동은 단기 총공급곡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 장기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총공급이라는 말만 보고 장기와 단기를 함께 묶어 외우면 4번에 흔들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물가예상처럼 명목 변수는 총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장기 총공급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에서 장기인지 단기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생산능력 자체를 바꾸는 실물 변수인지 아니면 주어진 생산능력 아래 가격과 임금 조정만 건드리는 명목 변수인지를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장기 총공급은 잠재산출량이며 노동·자본·기술은 이동 요인, 예상 물가는 단기 총공급 요인이다.

NoteBase

문 3. 총비용함수가 $TC = 100 + 20 \times Q$이다. 이때, TC는 총비용이고 Q는 생산량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생산량이 1일 때, 총고정비용은 120이다.
ㄴ. 생산량이 2일 때, 총가변비용은 40이다.
ㄷ. 생산량이 3일 때, 평균가변비용은 20이다.
ㄹ. 생산량이 4일 때, 한계비용은 20이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비용함수에서 총고정비용, 총가변비용, 평균가변비용, 한계비용을 분리해 각 진술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식은 $TC = 100 + 20Q$이다.
여기서 100은 생산량과 무관한 고정비용이고, $20Q$는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가변비용이다.
구해야 할 것은 ㄱ, ㄴ, ㄷ, ㄹ의 참거짓과 그 조합이다.

사용할 공식

$TC = TFC + TVC$, $AVC = TVC/Q$, $MC = \Delta TC/\Delta Q$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총비용함수가 직접 주어졌으므로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분해한 뒤 평균가변비용과 한계비용까지 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TC = 100 + 20Q$이므로 $TFC = 100$, $TVC = 20Q$이다.
2. 생산량이 1일 때 총고정비용은 여전히 100이므로 ㄱ의 120은 틀리다.
3. 생산량이 2일 때 $TVC = 20 \times 2 = 40$이므로 ㄴ은 옳다.
4. 생산량이 3일 때 $AVC = TVC/Q = 20Q/Q = 20$이므로 ㄷ은 옳다.
5. 한계비용은 총비용이 1단위 늘 때 증가하는 비용이므로 $MC = 20$이고, 생산량이 4일 때도 ㄹ은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1번은 ㄱ만 옳다고 본 선택지이지만 ㄱ은 틀리다. 총고정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하므로 생산량이 1이어도 120이 아니라 100이다. 올바르게는 ㄱ을 제외하고 ㄴ, ㄷ, ㄹ을 골라야 한다.
2번 X: 2번은 ㄴ, ㄷ만 옳다고 본 선택지이지만 ㄹ도 옳다. $MC = 20$이므로 빠진 진술은 ㄹ이다. 올바르게는 ㄴ, ㄷ, ㄹ을 고른 4번이다.
3번 X: 3번은 ㄴ, ㄹ만 옳다고 본 선택지이지만 ㄷ도 옳다. 평균가변비용은 $AVC = 20Q/Q = 20$이므로 생산량이 3일 때 20이 맞다. 올바르게는 ㄴ, ㄷ, ㄹ을 고른 4번이다.
4번 O: 4번은 ㄴ, ㄷ, ㄹ을 고른 선택지인데, $TVC = 40$, $AVC = 20$, $MC = 20$이므로 세 진술이 모두 옳다.

오답 포인트

총고정비용과 총비용을 혼동하면 ㄱ을 맞는 진술로 착각하기 쉽다. 또 평균가변비용 AVC와 한계비용 MC를 각각 나누기 계산과 증가분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ㄷ이나 ㄹ을 빠뜨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용함수가 나오면 먼저 상수항을 TFC, 생산량이 붙은 항을 TVC로 나눈다. 그다음 $AVC = TVC/Q$, MC는 생산 1단위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라는 순서로 판정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상수항은 고정비용, Q가 붙은 항은 가변비용, 선형 총비용함수의 기울기는 한계비용이다.

NoteBase

문 4. 재화 X의 가격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화 X와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 Y의 가격은 하락한다.

② 재화 X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 Y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③ 재화 X가 정상재라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④ 재화 X가 열등재라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화 자신의 가격 변화가 수요량에 미치는 효과와 대체재·보완재, 정상재·열등재의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량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해당 재화 자신의 가격 변화에 따라 같은 수요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양이다.
대체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로 소비가 이동하는 관계이다.
보완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함께 소비되는 다른 재화의 수요가 줄어드는 관계이다.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이고,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대체재 관계에서는 재화 X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재화 Y로 이동하므로 재화 Y의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이 된다. 틀린 표현은 "가격은 하락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재화 Y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이다.
2번 X: 보완재는 함께 소비되는 재화이므로 재화 X의 가격이 상승해 X의 수요량이 감소하면 재화 Y의 수요도 함께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수요량은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재화 Y의 수요는 감소한다"이다.
3번 O: 재화 X가 정상재이면 가격 상승 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수요량 감소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수요량이 감소한다. 정상재 여부를 붙여도 이 진술은 옳다.
4번 X: 열등재라고 해서 가격 상승 시 수요량이 곧바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열등재에서도 일반적으로는 가격 상승 시 수요량이 감소하며, 예외적으로 기펜재에서만 가격 상승과 수요량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수요량은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열등재라도 기펜재가 아닌 한 가격 상승 시 수요량은 감소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대체재·보완재는 다른 재화의 수요 변화를 묻는 개념이고, 정상재·열등재는 소득 변화에 대한 반응을 묻는 개념이다. 이를 자기 가격 변화와 섞으면 2번과 4번처럼 개념 축이 뒤바뀐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변화한 변수가 자기 가격인지, 다른 재화의 가격인지, 소득인지부터 구분한다. 자기 가격 변화이면 수요량 변화를 본다.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이면 대체재·보완재 관계를 본다. 소득 변화이면 정상재·열등재 여부를 본다.

암기 포인트

자기 가격 변화는 수요량, 다른 재화 가격 변화는 대체재·보완재, 소득 변화는 정상재·열등재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5.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서술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원화가치의 상승을 초래하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 확장적 재정정책과 달리 정책의 집행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④ 이자율이 하락하여 민간지출이 증가함으로써 경기회복에 기여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기본 전달경로와 재정정책과의 시차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장적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어 시장이자율을 하락시키고, 투자·소비 같은 민간지출과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해 총수요를 조절하고, 통화정책은 이자율과 신용여건을 통해 총수요를 조절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통화공급 확대나 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올바르게는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원화가치의 상승'과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이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국내 이자율을 낮춰 원화가치 하락 압력을 만들 수 있으므로 수출에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원화가치의 하락을 통해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정책의 집행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이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어 재정정책보다 내부시차가 짧은 편이다. 올바르게는 '재정정책보다 집행은 빠르지만 실물경제에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이다.
④ O: 이자율 하락은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늘려 민간지출을 확대하고, 그 결과 총수요가 증가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한다.

오답 포인트

확장적 통화정책을 긴축적 통화정책과 혼동하면 금리 인상, 통화가치 상승, 민간지출 감소를 떠올리기 쉽다. ①과 ②는 긴축 효과를 뒤집어 넣은 함정이고, ③은 집행시차와 효과시차를 섞어 놓은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정책 문제는 먼저 확장적 정책인지 긴축적 정책인지부터 구분하고, 그다음 금리 방향, 민간지출 방향, 환율 방향 순서로 연결하면 된다. 확장적이면 금리 하락, 투자·소비 증가, 원화가치 하락 가능성, 총수요 증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확장적 통화정책은 금리↓, 투자·소비↑, 원화가치↓ 가능성, 총수요↑이다.

NoteBase

문 6. 솔로우의 경제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균제상태에서 자본량과 국민소득은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

②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균제상태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이 높다.

③ 균제상태에서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일정하다.

④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균제상태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은 높아진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솔로우 성장모형의 균제상태에서 성장률과 수준 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균제상태는 자본과 산출의 장기 성장경로가 안정되어 자본-산출의 비율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이다.
기술수준의 높고 낮음은 균제상태의 일인당 소득 수준을 바꾸지만, 일인당 소득의 장기 증가율은 기술진보율이 결정한다.
인구증가율은 균제상태의 자본심화 정도를 바꾸므로 일인당 소득 수준에 영향을 준다.

선지별 해설

① O
균제상태에서는 총자본 K와 총국민소득 Y가 같은 장기 성장률로 증가한다. 생산함수와 자본축적이 균형을 이루면 총량 변수는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② X
틀린 부분은 "기술수준이 높을수록"과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이 높다"라는 연결이다. 솔로우 모형에서 기술수준의 상승은 균제상태의 일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높이지만, 장기 증가율 자체는 기술진보율이 결정된다.
올바르게는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균제상태의 일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높아질 수 있으나, 증가율은 기술진보율에 의해 결정된다"이다.

③ O
균제상태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물을 결정하는 자본의 상대적 희소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자본의 한계생산물도 일정하다. 자본축적이 더 진행되어도 균형 경로 위에서는 그 값이 안정된다.

④ O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새로 늘어나는 노동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본이 줄어들어 균제상태의 자본량이 더 높아진다. 그 결과 일인당 국민소득도 높아진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기술수준의 수준효과와 기술진보율의 성장률효과를 섞으면 ②에 쉽게 끌린다. 솔로우 모형에서는 "수준을 높이는 변수"와 "장기 증가율을 바꾸는 변수"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솔로우 모형 선지는 먼저 그 변수가 장기 성장률을 바꾸는지, 아니면 균제상태의 소득 수준만 바꾸는지를 나누어 판단한다. 기술수준과 저축률, 인구증가율은 주로 수준에 영향을 주고, 기술진보율이 장기 일인당 성장률을 결정한다.

암기 포인트

솔로우 모형은 "기술수준은 수준, 기술진보율은 성장률"로 구분한다.

NoteBase

문 7.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마찰적 실업이란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이다.
ㄴ. 구조적 실업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한 노동자들이 경험할 수 있다.
ㄷ.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윤감소 혹은 매출감소 등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한다.
ㄹ.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구조적, 경기적 실업률의 합으로 정의된다.
ㅁ. 자연실업률은 완전고용상태에서의 실업률이라고도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자연실업률의 정의와 포함 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기술 변화나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자의 기술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맞지 않아 생기는 실업이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침체로 총수요가 줄어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실업이다.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률과 구조적 실업률의 합이며, 완전고용상태에서도 존재하는 실업률이다.
따라서 문장 판단은 ㄱ O, ㄴ O, ㄷ O, ㄹ X, ㅁ O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 ㄴ, ㄷ은 옳지만 ㅁ이 빠져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완전고용상태의 실업률이라는 ㅁ까지 포함한 ㄱ, ㄴ, ㄷ, ㅁ이어야 한다.
② X: ㄱ, ㄷ, ㅁ은 옳지만 ㄹ이 포함되어 있고 ㄴ이 빠져 있다. 틀린 부분은 자연실업률에 경기적 실업률을 포함시킨 점이다. 올바르게는 ㄹ을 빼고 ㄴ을 넣은 ㄱ, ㄴ, ㄷ, ㅁ이다.
③ O: ㄱ, ㄴ, ㄷ, ㅁ을 모두 포함하고, 틀린 진술인 ㄹ은 제외한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④ X: ㄹ이 들어가 있어 틀리고, 옳은 진술인 ㄴ도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자연실업률을 마찰적 실업률과 구조적 실업률의 합으로 보고, 조합도 ㄱ, ㄴ, ㄷ, ㅁ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자연실업률을 '정상적 실업 전체'로 막연히 외우면 경기적 실업까지 포함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ㄹ의 '경기적 실업률의 합'이라는 표현과, 조합형 선택지에서 맞는 문장 하나를 빠뜨리거나 틀린 문장 하나를 끼워 넣는 방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업 유형 문제는 먼저 마찰적, 구조적, 경기적 실업의 발생 원인을 구분한 뒤 자연실업률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본다.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포함하고 경기적 실업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조합형 선택지도 바로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자연실업률 = 마찰적 실업률 + 구조적 실업률, 경기적 실업은 제외이다.

NoteBase

문 8.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

② 화폐수요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

③ 화폐수요가 이자율 변화에 둔감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

④ 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둔감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증가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S-LM 모형에서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와 화폐수요의 이자율 민감도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이나 조세 변화로 IS곡선을 이동시켜 총수요를 바꾸는 정책이다.
통화정책은 통화량 변화로 LM곡선을 이동시켜 이자율과 산출을 바꾸는 정책이다.
구별 기준은 곡선의 기울기이다.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IS곡선은 평탄해지고,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LM곡선은 평탄해진다.
재정정책은 IS가 가파르고 LM이 평탄할수록 강해지고, 통화정책은 IS가 평탄하고 LM이 가파를수록 강해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면 IS곡선이 평탄해진다. 이때 재정확대로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투자가 크게 줄어 구축효과가 커지므로 재정정책의 산출 증가 효과는 작아진다.
② X. 틀린 표현은 '재정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이다. 화폐수요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면 LM곡선이 평탄해져 재정확대 시 이자율 상승폭이 작고 구축효과도 작다. 올바르게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증가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이다. 화폐수요가 이자율 변화에 둔감하면 LM곡선이 가파르다. 이 경우 통화량 증가가 이자율 하락과 산출 증가로 더 크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증가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증가한다'이다. 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둔감하면 IS곡선이 가파르다. 이자율이 내려가도 투자가 크게 늘지 않으므로 올바르게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를 모두 같은 방향으로 외우면 ②와 ③에서 쉽게 뒤집힌다. 이 문항의 함정은 '민감하다'와 '둔감하다'를 각각 IS와 LM의 기울기 변화로 바꾸지 않고 바로 효과만 판단하게 만드는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어느 곡선이 바뀌는지 본다.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는 IS의 기울기, 화폐수요의 이자율 민감도는 LM의 기울기와 연결된다. 그다음 재정정책은 구축효과가 작을수록 강하고, 통화정책은 이자율 변화가 투자와 산출로 크게 전달될수록 강하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재정정책은 가파른 IS, 평탄한 LM에서 강하고 통화정책은 평탄한 IS, 가파른 LM에서 강하다.

NoteBase

문 9. 어떤 독점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곡선상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댓값)이 1이 되는 점이 있다고 하자. 이 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다.

② 한계비용이 0이 되는 점이다.

③ 한계수입이 0이 되는 점이다.

④ 평균비용이 극소화되는 점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이 1인 점이 한계수입과 총수입에 대해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한계수입은 판매량을 1단위 늘릴 때 총수입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MR = P\left(1 - \frac{1}{|e|}\right)$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e| = 1$이면 $MR = 0$이 되고, 이 점은 총수입이 극대화되는 점과 일치한다.
이윤극대화 조건은 $MR = MC$이므로, $MR = 0$이라는 사실만으로 이윤극대화를 바로 뜻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라는 표현이다. 이윤극대화는 $MR = MC$에서 성립하므로, $|e| = 1$에서 $MR = 0$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윤극대화라고 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총수입이 극대화되는 점이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한계비용이 0이 되는 점"이라는 표현이다. 탄력성 1은 수요와 수입의 관계를 말할 뿐 비용조건을 뜻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한계수입이 0이 되는 점이다"이다.
③ O: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에서 $|e| = 1$이면 $MR = P\left(1 - \frac{1}{|e|}\right) = 0$이므로, 한계수입이 0이 되는 점이라는 설명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평균비용이 극소화되는 점"이라는 표현이다. 평균비용의 극소점은 일반적으로 $MC = AC$인 곳에서 결정되며, 수요의 탄력성이 1인 점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평균비용 극소점은 비용곡선의 조건으로 결정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탄력성 1인 점에서 총수입이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이윤극대화와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수입조건인 $MR = 0$을 비용조건인 $MC = 0$, AC 최소와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기업에서 탄력성 언급이 나오면 먼저 $MR = P\left(1 - \frac{1}{|e|}\right)$를 떠올리면 된다. $|e| = 1$이면 $MR = 0$, $|e| > 1$이면 $MR > 0$, $|e| < 1$이면 $MR < 0$로 연결한 뒤, 총수입 조건인지 이윤극대화 조건인지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e|=1 → MR=0 → 총수입 최대, 이윤극대화는 $MR = MC$이다.

NoteBase

문 10.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Q_D = 120 - p$이고 공급곡선은 $Q_S = 2p$이다. 여기에 정부가 개당 30원의 종량세를 부과하였다면,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얼마인가?

① 300원

② 400원

③ 500원

④ 600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종량세 부과로 줄어든 거래량을 이용해 경제적 순손실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수요곡선: $Q_D = 120 - p$
- 공급곡선: $Q_S = 2p$
- 종량세: 개당 30원

구해야 할 값:
-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주의할 조건:
- 종량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 사이에 30원의 세금 쐐기가 생긴다.

사용할 공식

경제적 순손실은 세금으로 줄어든 거래량을 밑변으로 하고 세율을 높이로 하는 삼각형의 면적이다.

$DWL = \frac{1}{2} \times t \times \Delta Q$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완전경쟁시장의 종량세는 거래량을 줄이고, 그 감소분에서 사라지는 잉여가 삼각형 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세금 부과 전 균형을 구한다.
$120 - p = 2p$
$120 = 3p$
$p = 40, \quad Q = 80$
2. 세금 30원이 붙으면 소비자 가격을 p_c, 생산자 수취가격을 p_p라 할 때 $p_c - p_p = 30$이다. 공급은 생산자 가격 기준이므로
$Q_S = 2p_p = 2(p_c - 30) = 2p_c - 60$
3. 세후 균형은
$120 - p_c = 2p_c - 60$
$180 = 3p_c$
$p_c = 60, \quad p_p = 30, \quad Q = 60$
4. 거래량 감소분은 $\Delta Q = 80 - 60 = 20$이다.
5.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은
$DWL = \frac{1}{2} \times 30 \times 20 = 300$
이므로 3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계산 결과 경제적 순손실은 300원이다. 세율 30원과 거래량 감소분 20을 이용해 $\frac{1}{2} \times 30 \times 20$으로 구한다.

② X
- 4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이 문항의 순손실은 삼각형 면적이므로 300원이어야 한다. 올바르게는 300원이다.

③ X
- 500원은 세후 거래량 감소분이나 세금 쐐기를 잘못 적용했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순손실은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므로 500원이 될 수 없다. 올바르게는 300원이다.

④ X
- 600원은 30×20만 계산해 세수 직사각형이나 면적의 두 배로 착각한 값이다. 순손실은 그 절반이므로 600원이 아니라 300원이다. 올바르게는 3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세수와 경제적 순손실을 혼동하면 $30 \times 20 = 600$을 바로 선택하기 쉽다. 이 문항은 세금으로 줄어든 거래량 부분만이 순손실이며, 면적도 삼각형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량세 계산형 문제는 세전 균형 수량, 세후 균형 수량, 거래량 감소분을 차례로 구한 뒤 순손실은 (1)/(2)× 세율 × 거래량 감소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종량세의 경제적 순손실은 세율과 거래량 감소분으로 만든 삼각형 면적이다.

NoteBase

문 11. 교역이 전혀 없던 두 국가 간에 완전한 자유무역이 개시된다고 하자.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어느 한 개인이라도 이전보다 후생수준이 낮아지는 일은 없다.

② 산업 간 무역보다는 산업 내 무역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③ 무역의 확대로 양국에서의 실업이 감소한다.

④ 수출재 시장의 생산자잉여와 수입재 시장의 소비자잉여가 모두 증가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유무역이 시작될 때 각국의 수출재 시장과 수입재 시장에서 가격과 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출재는 자유무역 후 국내가격이 세계가격 쪽으로 올라가 생산자에게 유리해지는 재화이다.
수입재는 자유무역 후 국내가격이 세계가격 쪽으로 내려가 소비자에게 유리해지는 재화이다.
자유무역은 총후생을 키울 수 있지만 모든 개인이 동시에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며, 수출재 소비자와 수입경쟁 생산자처럼 손해를 보는 집단도 생긴다.

선지별 해설

① X: 자유무역은 총잉여를 늘릴 수 있어도 모든 개인의 후생을 반드시 높이지는 않는다. 틀린 표현은 "어느 한 개인이라도 이전보다 후생수준이 낮아지는 일은 없다"이다. 올바르게는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② X: 교역이 전혀 없던 두 국가가 처음 무역을 시작하면 비교우위에 따른 산업 간 무역이 기본 설명이다. 틀린 표현은 "산업 간 무역보다는 산업 내 무역이 더 많이"이다. 올바르게는 표준적인 자유무역 효과는 산업 간 무역의 확대이다.
③ X: 무역 확대가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양국의 실업이 반드시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틀린 표현은 "양국에서의 실업이 감소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산업 재편 과정에서 일부 부문 실업이나 이전 비용이 생길 수 있다.
④ O: 자유무역이 시작되면 각국에서 수출재의 국내가격은 상승해 그 시장의 생산자잉여가 증가하고, 수입재의 국내가격은 하락해 그 시장의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자유무역의 대표적 분배효과를 정확히 짚은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자유무역이 총후생을 증가시킨다는 말과 모든 경제주체가 이득을 본다는 말을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총효율의 증가와 분배효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①이나 ③으로 흔들리게 만든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유무역 문제는 먼저 수출재인지 수입재인지 나눈다. 그다음 수출재는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이익 증가, 수입재는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이익 증가라는 방향을 대입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자유무역에서는 수출재 생산자 이득, 수입재 소비자 이득이 기본 축이다.

NoteBase

문 12. 폐쇄경제 하에서 소비(C)는 감소하고 정부지출(G)은 증가할 경우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국민소득과 세금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① 민간저축과 정부저축 모두 증가한다.

② 민간저축과 정부저축 모두 감소한다.

③ 민간저축은 증가하고 정부저축은 감소한다.

④ 민간저축은 감소하고 정부저축은 증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폐쇄경제에서 국민소득과 세금이 고정될 때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변화 방향을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민간저축은 가계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하고 남긴 부분이므로 $S_p = Y - T - C$이다. 정부저축은 정부의 세입에서 정부지출을 뺀 부분이므로 $S_g = T - G$이다. 이 문항에서는 Y와 T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소비 C의 감소는 민간저축 증가를 뜻하고, 정부지출 G의 증가는 정부저축 감소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민간저축은 소비 감소 때문에 증가한다. 그러나 정부저축은 $T - G$에서 G가 커지므로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정부저축 모두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민간저축은 증가하고 정부저축은 감소한다"이다.

② X
정부저축 감소는 맞지만 민간저축 감소는 틀리다. Y와 T가 고정일 때 C가 줄면 $Y - T - C$는 커진다.
틀린 표현은 "민간저축 모두 감소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민간저축은 증가하고 정부저축은 감소한다"이다.

③ O
민간저축은 $S_p = Y - T - C$에서 소비 감소만 반영되므로 증가한다. 정부저축은 $S_g = T - G$에서 정부지출 증가만 반영되므로 감소한다.

④ X
정부저축 증가는 틀리다. 세금이 고정된 상태에서 정부지출이 늘면 정부저축은 줄어든다.
틀린 표현은 "정부저축은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정부저축은 감소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실수가 잦다. 이 문항은 소비 감소와 정부지출 증가가 서로 다른 저축 식에 들어간다는 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①, ②, ④ 중 하나로 흔들리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저축 문제는 먼저 주체를 나누어 식을 적으면 된다. 민간저축은 $Y - T - C$, 정부저축은 $T - G$로 두고 고정된 변수와 변하는 변수만 반영하면 방향을 바로 판정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민간저축은 소비와 반대로, 정부저축은 정부지출과 반대로 움직인다.

NoteBase

문 13. 다음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들을 조합한 것이다. 이 중 가장 확장적인 기조의 정책조합은?

① 공개시장 매각-법정지급준비율 인상-재할인율 인상

② 공개시장 매각-법정지급준비율 인하-재할인율 인상

③ 공개시장 매입-법정지급준비율 인상-재할인율 인하

④ 공개시장 매입-법정지급준비율 인하-재할인율 인하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개시장조작, 법정지급준비율, 재할인율이 통화량에 미치는 방향을 조합해 가장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개시장 매입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므로 확장적이다. 공개시장 매각은 시중 자금을 흡수하므로 긴축적이다.
법정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이 더 많이 대출할 수 있게 하므로 확장적이고, 인상은 대출여력을 줄이므로 긴축적이다.
재할인율 인하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 대출 확대를 유도하므로 확장적이고, 인상은 그 반대이므로 긴축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공개시장 매각, 법정지급준비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은 모두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긴축 조합이다. 틀린 표현은 전체 조합을 확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세 수단이 모두 긴축 방향이어서 가장 비확장적이다.
② X: 공개시장 매각과 재할인율 인상은 긴축적이고, 법정지급준비율 인하만 확장적이다. 틀린 표현은 이 조합을 가장 확장적이라고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확장과 긴축이 섞였지만 긴축 수단이 포함된 조합이다.
③ X: 공개시장 매입과 재할인율 인하는 확장적이지만, 법정지급준비율 인상은 긴축적이다. 틀린 표현은 이 조합이 가장 확장적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두 수단은 확장적이지만 지급준비율 인상이 확장 효과를 일부 상쇄한다.
④ O: 공개시장 매입,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는 모두 시중 자금공급과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확장적 수단이다. 세 수단이 같은 방향으로 통화팽창을 유도하므로 가장 확장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법정지급준비율 인하와 재할인율 인하를 모두 확장으로 알고 있어도 공개시장 매각을 반대로 읽으면 ②를 고르기 쉽다. 또 ③은 공개시장 매입과 재할인율 인하 때문에 확장적으로 보이지만, 지급준비율 인상이라는 긴축 신호가 숨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수단을 하나씩 분리해 유동성 공급인지 흡수인지 먼저 판정하면 된다. 매입·인하·인하는 확장,
매각·인상·인상은 긴축으로 정리한 뒤 세 수단이 모두 같은 확장 방향인 조합을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채권은 매입이면 돈이 풀리고 매각이면 돈이 걷힌다. 지급준비율과 재할인율은 인하면 확장, 인상이면 긴축이다.

NoteBase

문 14. 작년에 비해 실질 GDP(Gross Domestic Product)가 상승하였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작년에 비해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 모두 증가하였다.

② 작년에 비해 명목 GDP가 증가하였거나 GDP 디플레이터가 감소하였다.

③ 작년에 비해 명목 GDP는 감소하였고 GDP 디플레이터는 증가하였다.

④ 작년에 비해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 모두 감소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실질 GDP, 명목 GDP, GDP 디플레이터의 관계식 실질 GDP = (명목 GDP)/(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변화 방향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질 GDP: 물가 변동을 제거한 생산량 지표이다.
명목 GDP: 당해 연도 가격으로 평가한 생산액이다.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실질 GDP)×100으로 나타내는 전반적 물가수준 지표이다.
실질 GDP가 증가했다는 것은 분자인 명목 GDP가 더 크게 늘었거나, 분모인 GDP 디플레이터가 내려갔거나, 둘 다 일어났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실질 GDP가 올랐다고 해서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가 모두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틀린 표현은 "모두 증가"이다. 올바르게는 명목 GDP가 증가하면서 디플레이터는 감소할 수도 있고, 명목 GDP가 감소하더라도 디플레이터가 더 크게 감소하면 실질 GDP는 증가할 수 있다.
② O: 실질 GDP = (명목 GDP)/(GDP 디플레이터)이므로 실질 GDP가 상승했다면 적어도 명목 GDP가 증가했거나 GDP 디플레이터가 감소한 경우는 반드시 포함된다. 두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③ X: 명목 GDP가 감소하고 GDP 디플레이터가 증가하면 분자는 줄고 분모는 커지므로 실질 GDP는 하락한다. 틀린 표현은 "명목 GDP는 감소하였고 GDP 디플레이터는 증가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이런 조합으로는 실질 GDP 상승을 설명할 수 없다.
④ X: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가 모두 감소하는 경우에는 실질 GDP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모두 감소하였다"를 실질 GDP 상승의 일반조건처럼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둘 다 감소하더라도 GDP 디플레이터의 감소율이 더 클 때에만 실질 GDP가 증가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실질 GDP 상승을 보면 곧바로 생산 증가와 물가 상승이 함께 일어났다고 연결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은 절대 방향이 아니라 분자와 분모의 상대 변화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질 GDP 변화 문항은 먼저 실질 GDP = (명목 GDP)/(GDP 디플레이터)로 바꿔 본다. 그다음 분자는 커질수록, 분모는 작아질수록 실질 GDP가 커진다는 방향만 점검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실질 GDP는 명목 GDP를 디플레이터로 나눈 값이므로 분자 증가 또는 분모 감소면 실질 GDP 증가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5. 고급 한식에 대한 열풍으로 한식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가정하자. 한식 가격의 상승이 한식 요리사들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노동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임금이 상승한다.

② 노동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임금이 하락한다.

③ 노동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임금이 하락한다.

④ 노동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임금이 상승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산출물 가격 상승이 생산요소인 노동의 파생수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고급 한식에 대한 열풍으로 한식의 시장가격이 상승하였다.
한식 요리사는 한식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이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은 산출물 가격 상승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를 높인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노동수요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되는 수요이다.
산출물 가격이 오르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상승하므로 기업은 각 임금 수준에서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하려 하여 노동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한식 가격 상승이 한식 요리사의 생산성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이 만들어 내는 산출물의 가치만 높였는지를 본다.
핵심은 노동공급 변화가 아니라 노동수요 증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한식 가격이 오르면 한식 요리사 1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얻는 산출물 가치가 커진다. 따라서 노동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균형임금이 상승한다.

② X
노동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산출물 가격이 하락하거나 노동의 생산성이 낮아져야 한다. 이 선지의 틀린 표현은 '왼쪽으로 이동하여 임금이 하락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노동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임금이 상승한다'이다.

③ X
고급 한식 열풍은 한식 요리사 노동의 공급조건을 직접 바꾸는 사건이 아니다. 이 선지의 틀린 표현은 '노동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임금이 하락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노동 공급곡선은 그대로이고 노동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임금이 상승한다'이다.

④ X
노동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임금이 오를 수는 있지만, 문제의 원인인 한식 가격 상승은 노동공급 감소를 뜻하지 않는다. 이 선지의 틀린 표현은 '노동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이다. 올바르게는 '노동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이다.

오답 포인트

한식 가격 상승을 보고 임금 상승만 떠올리고 노동수요 이동과 노동공급 이동을 구분하지 못하면 ④처럼 공급 감소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은 결과인 임금 상승이 아니라 원인인 산출물 가격 상승이 어느 곡선을 움직이는지를 묻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요소시장 문제에서는 먼저 변화가 산출물시장 변수인지, 노동자 수나 선호 같은 공급변수인지 구분한다. 산출물 가격 상승이면 해당 요소의 파생수요 증가로 보고 노동수요곡선 우측 이동을 먼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산출물 가격 상승 → 노동 한계생산가치 상승 → 노동수요 우측 이동 → 임금 상승이다.

NoteBase

문 16. 정부부문 및 대외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의 소비함수와 투자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가) '현재의 균형국민소득'과 (나) '독립투자가 400조원 증가할 경우의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분'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C, I, Y는 각각 소비, 투자, 국민소득을 의미한다.)

소비함수 C=600+0.6Y
투자함수 I=2,400

① (가): 7,000조원, (나): 1,000조원
② (가): 7,000조원, (나): 1,200조원
③ (가): 7,500조원, (나): 1,000조원
④ (가): 7,500조원, (나): 1,200조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폐쇄경제에서 소비함수와 투자함수를 이용해 균형국민소득을 구하고, 한계소비성향으로 투자승수를 계산해 독립투자 증가분이 국민소득을 얼마나 늘리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소비함수는 $C = 600 + 0.6Y$이다.
- 투자함수는 $I = 2{,}400$이다.
- 독립투자는 400조원 증가한다.

구해야 할 값:
- 현재의 균형국민소득 (가)
- 독립투자 400조원 증가 시 균형국민소득 증가분 (나)

주의할 조건:
- 정부부문과 대외부문이 없으므로 총지출은 $C + I$만 고려한다.
- 0.6은 한계소비성향이므로 승수 계산에 그대로 사용된다.

사용할 공식

균형조건은 $Y = C + I$이다.
투자승수는 $k = \frac{1}{1-c}$이다. 여기서 c는 한계소비성향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 문항은 정부와 해외가 없는 단순 케인즈 모형이므로 균형소득은 $Y = C + I$로 결정된다. 또 독립투자 증가는 승수 $\frac{1}{1-c}$만큼 국민소득을 확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현재의 균형국민소득을 구한다.

$Y = C + I = 600 + 0.6Y + 2{,}400$

$0.4Y = 3{,}000$

$Y = 7{,}500$

따라서 (가)는 7,500조원이다.

2. 투자승수를 구한다.

$k = \frac{1}{1 - 0.6} = \frac{1}{0.4} = 2.5$

3. 독립투자 400조원 증가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분을 구한다.

$\Delta Y = k \times \Delta I = 2.5 \times 400 = 1{,}000$

따라서 (나)는 1,000조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의 '7,000조원'이 틀렸다. 균형국민소득은 7,500이므로 올바르게는 '7,500조원'이다. (나)의 '1,000조원'은 맞지만 (가)가 틀려서 오답이다.

② X: (가)의 '7,000조원'이 틀렸고 (나)의 '1,200조원'도 틀렸다. 올바르게는 '(가) 7,500조원, (나) 1,000조원'이다. 1,200조원은 승수를 잘못 적용했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③ O: (가) 7,500조원은 $Y = 600 + 0.6Y + 2{,}400$의 균형해와 일치한다. (나) 1,000조원도 투자승수 2.5에 투자증가분 400조원을 곱한 결과와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④ X: (가)의 '7,500조원'은 맞지만 (나)의 '1,200조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나) 1,000조원'이다. 승수 2.5 대신 다른 값을 쓰면 이런 오답이 나온다.

오답 포인트

현재의 균형소득을 구할 때 $0.6Y$를 좌변으로 넘기지 않으면 (가)를 잘못 계산하기 쉽다. 또 (나)에서는 독립투자 증가분 400 자체를 답으로 보거나, 승수 공식을 잘못 써서 1,200조원 같은 값을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균형소득 수준'과 '소득 증가분'을 서로 다른 단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순 케인즈 계산형은 먼저 $Y = C + I$로 현재의 균형소득을 구하고, 그다음 한계소비성향으로 승수 $\frac{1}{1-c}$를 계산해 변화분 ΔY를 따로 구하면 된다. 수준과 증가분을 섞지 않으면 선지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폐쇄경제 단순모형은 $Y = C + I$, 투자승수는 $\frac{1}{1 - MPC}$이다. 수준은 균형식으로, 증가분은 승수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중 정보경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별(screening)이란 사적정보를 가진 경제주체가 상대방의 정보를 더욱 얻어내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② 신호발생(signalling)이란 정보를 가진 경제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행동이다.

③ 탐색행위(search activities)란 상품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수요자가 좀 더 낮은 가격을 부르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이다.

④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상대방의 감추어진 속성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쪽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현상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보경제의 핵심 개념인 선별, 신호발생, 탐색행위, 역선택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선별은 정보가 부족한 쪽이 계약 조건이나 절차를 설계해 상대방의 숨은 정보를 드러내게 하는 행위이다.
신호발생은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유형이나 질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탐색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쪽이 더 유리한 거래조건을 찾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이다.
역선택은 거래 전 숨은 속성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쪽이 불리한 상대를 선택하게 되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사적정보를 가진 경제주체가"이다. 선별은 정보를 가진 쪽이 아니라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이 상대방의 숨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올바르게는 "선별은 사적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제주체가 상대방의 정보를 더 알아내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이다.
2번: O. 신호발생은 정보를 가진 경제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자신의 유형을 알리는 행동이므로 설명이 맞다.
3번: O. 탐색행위는 가격정보가 불완전한 수요자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처를 찾으려는 행동을 뜻하므로 설명이 맞다.
4번: O. 역선택은 숨겨진 속성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쪽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나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현상이므로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선별과 신호발생은 둘 다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장치이지만 행동 주체가 반대이다. 정보를 가진 쪽이 움직이면 신호발생이고,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이 장치를 설계하면 선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보비대칭 문항은 먼저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인지 확인한 다음, 그 주체가 직접 정보를 보내면 신호발생,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를 가려내려 하면 선별, 거래조건을 찾아다니면 탐색행위, 잘못된 상대가 선택되면 역선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신호는 정보 보유자가 보낸다, 선별은 정보 부족자가 가려낸다, 역선택은 숨은 속성 때문에 거래 전 잘못 고른다.

NoteBase

문 18. 새고전학파와 새케인즈학파의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새고전학파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정부지출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② 새고전학파에 따르면 예상된 통화공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만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③ 새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통화공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④ 새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예상된 정부지출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새고전학파와 새케인즈학파를 구분하는 기준인 정책의 예상 여부와 정책효과의 지속 기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새고전학파는 합리적 기대와 가격의 신축성을 중시하여 예상된 정책은 실물변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새케인즈학파는 가격·임금의 경직성을 중시하여 총수요 관리정책이 적어도 단기에는 산출과 국민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구분축은 예상된 정책이 실물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단기인지 장기인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이다. 새고전학파에서는 장기 국민소득이 자연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정부지출 확대가 장기 실물소득을 늘린다고 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예상치 못한 정책충격이 있더라도 장기 국민소득 증가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 X: 틀린 부분은 "예상된 통화공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만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이다. 새고전학파에서는 예상된 통화공급 증가는 사람들이 미리 반영하므로 국민소득을 늘리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예상치 못한 통화공급 증가만 단기적으로 실물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③ X: 틀린 부분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이다. 새케인즈학파에서도 통화공급 확대의 실물효과는 가격·임금 경직성이 남아 있는 단기에 주로 나타난다. 올바르게는 예상치 못한 통화공급 증가는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효과는 지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O: 새케인즈학파는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총수요 확대정책이 단기에는 산출과 국민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예상된 정부지출 증가가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예상된/예상치 못한"과 "단기/장기"를 서로 바꾸어 놓은 데 있다. 특히 새고전학파는 예상된 정책의 무효성, 새케인즈학파는 단기 유효성을 연결해야 하는데, ②와 ③은 각각 예상 여부와 기간을 뒤섞어 오답을 만들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파 비교 문제에서는 먼저 가격·임금의 신축성 여부를 떠올린다. 신축적이면 새고전학파로 보고 예상된 정책은 실물효과가 없다고 판단한다. 경직적이면 새케인즈학파로 보고 총수요 정책은 단기에는 실물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새고전학파는 예상정책 무효, 새케인즈학파는 단기 총수요정책 유효이다.

NoteBase

문 19. 어떤 나라의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명으로 일정하다고 하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취업인구 중에서 매달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의 비율이 2%이고 실업인구 중에서 매달 취업이 되는 노동자의 비율이 14%라면, 이 나라의 자연실업률은?

① 12%

② 12.5%

③ 13%

④ 13.5%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상상태 실업률에서 월별 실직률과 취업률의 관계를 이용해 자연실업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경제활동인구는 1,00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없다.
주어진 값: 취업자 중 매달 일자리를 잃는 비율은 2%이다.
주어진 값: 실업자 중 매달 취업되는 비율은 14%이다.
구해야 할 값: 자연실업률이다.
주의할 조건: 자연실업률에서는 정상상태이므로 실업으로 들어가는 인원과 실업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같아진다.

사용할 공식

정상상태에서는 실업 유입과 유출이 같으므로 $sE = fU$ 이다. 여기서 s는 실직률, f는 취업률, E는 취업자 수, U는 실업자 수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자연실업률은 경기적 변동이 없는 정상상태 실업률이므로 매달 새로 실업자가 되는 수와 새로 취업하는 수가 일치해야 한다.

계산 과정

실직률은 0.02, 취업률은 0.14 이다.
정상상태 조건을 쓰면 $0.02E = 0.14U$ 이다.
따라서 $U/E = 0.02/0.14 = 1/7$ 이다.
경제활동인구는 $E + U$ 이므로 실업률은 $U/(E + U)$ 이다.
$U = E/7$ 이므로
$\frac{U}{E+U} = \frac{E/7}{E+E/7} = \frac{1/7}{8/7} = \frac{1}{8} = 0.125$
따라서 자연실업률은 12.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 계산 결과 자연실업률은 12.5%이므로 '12%'라는 수치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자연실업률은 12.5%'이다.
2번 O: 정상상태 식 $s/(s+f) = 0.02/(0.02+0.14) = 0.125$ 이므로 12.5%가 맞다.
3번 X: 계산 결과보다 0.5%포인트 높으므로 '13%'라는 수치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자연실업률은 12.5%'이다.
4번 X: 계산 결과보다 1%포인트 높으므로 '13.5%'라는 수치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자연실업률은 12.5%'이다.

오답 포인트

실업률을 단순히 14%-2%처럼 비율의 차이로 처리하면 틀린다. 이 문제는 취업자 집단과 실업자 집단의 이동을 비교하는 문제이므로 정상상태 조건 $sE = fU$ 또는 $u = s/(s+f)$ 를 써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실업률 문제는 먼저 실직률 s 와 취업률 f 를 확인하고, 정상상태 식 $u = s/(s+f)$ 또는 $sE = fU$ 를 적용해 계산한다. 비율의 단순 합이나 차로 처리하지 않으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자연실업률은 정상상태 실업률이므로 핵심 식은 $u = s/(s+f)$ 이다.

NoteBase

문 20.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한 기업의 생산 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을 변화시키며, 동시에 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ㄷ. 코즈(Coase)정리에 의하면 소유권이 명백하게 정의되고 협상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체와 그 피해를 입는 주체 간의 협상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외부효과의 정의, 시장실패와의 관계, 그리고 코즈 정리의 성립 조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가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지만 그 효과에 대한 대가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다.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외부효과는 그 대표적 원인 중 하나이다.
코즈 정리는 소유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으면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ㄱ만 옳다고 본 선택지이다. 그러나 ㄷ도 옳으므로 이 선택지는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 ㄷ'이다.

② X
ㄴ을 옳다고 포함한 선택지라서 틀리다. ㄴ의 틀린 부분은 '동시에 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이다. 외부효과는 보상 없이 제3자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뜻한다. 올바르게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이 영향을 받지만 적절한 보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이다.

③ O
ㄱ과 ㄷ만 옳다고 본 선택지이다. ㄱ은 외부효과가 가격기구에 반영되지 않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으므로 시장실패의 전형적 사례라는 점에서 옳다. ㄷ은 소유권이 명확하고 협상비용이 없으면 외부효과 유발자와 피해자 사이의 협상으로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는 코즈 정리의 설명이므로 옳다.

④ X
ㄴ을 포함했기 때문에 틀리다. 외부효과의 핵심은 비보상성인데 ㄴ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개념을 뒤집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오답 포인트

ㄴ의 '후생을 변화시킨다'는 앞부분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뒤에 붙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가 외부효과의 정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코즈 정리도 '효율적 배분'과 '공평한 분배'를 혼동하면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효과 문제는 먼저 '제3자에게 영향이 있는가'와 '그 영향이 가격이나 보상으로 내부화되었는가'를 본다. 보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외부효과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코즈 정리는 소유권 명확성과 거래비용 부재가 보이면 협상을 통한 효율성 회복을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외부효과는 비보상, 코즈 정리는 무거래비용 협상, 정답 조합은 ㄱ·ㄷ이다.

NoteBase